



지휘 _ 미하엘 잔데를링 Michael Sanderling_ Conductor

미하엘 잔데를링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2018/19 여덟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베토벤 교향곡 2번과 더불어 세계 초연 연주로 선보이는 파쉴 세이의 교향곡 4번으로 시즌 개막 공연을 지휘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토론토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그리고 뮌헨 방송 교향악단,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등 독일을 대표하는 방송교향악단에서 객원 지휘자로 여러 악단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케스트라에 데뷔했다. 이외에도 베를린 필하모닉,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와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는 아시아, 남미, 미국,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전세계를 정기적으로 투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녹음작업을 끝마친 베토벤 교향곡 전곡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음반이 소니 클래식 레이블로 발매를 앞두고 있다.

오페라 지휘로는 포츠담에서 필립 글래스의 <어셔가의 몰락>과 콜론 오페라극장에서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선보였다. 베를린 출생으로, 미하엘 잔데를링은 오케스트라 단원 및 솔로이스트로 뛰어난 경력을 쌓은 후, 포디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거듭난 지휘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20세의 나이에 그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쿠르트 마주어의 지휘 아래 솔로 첼리스트로 활동했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솔로 첼리스트로도 지냈다. 솔로이스트로 그는 보스턴 심포니, LA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여러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연주했고 드보르자크, 슈만,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의 첼로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자로 데뷔한 무대는 2000년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였으며, 이후 그는 화려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전설적인 지휘자인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로, 어린 나이부터 지휘를 접하면서 더 많은 곳에서 지휘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포츠담 캄머 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잔데를링은 젊은 음악가들과 교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는 프랑크푸르트 공연예술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독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바이마르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용계 도이체 필하모닉,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작업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이치 현악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했다. 그의 음악적 지평은 바흐와 헨델부터 여러 초연 무대까지 폭넓은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